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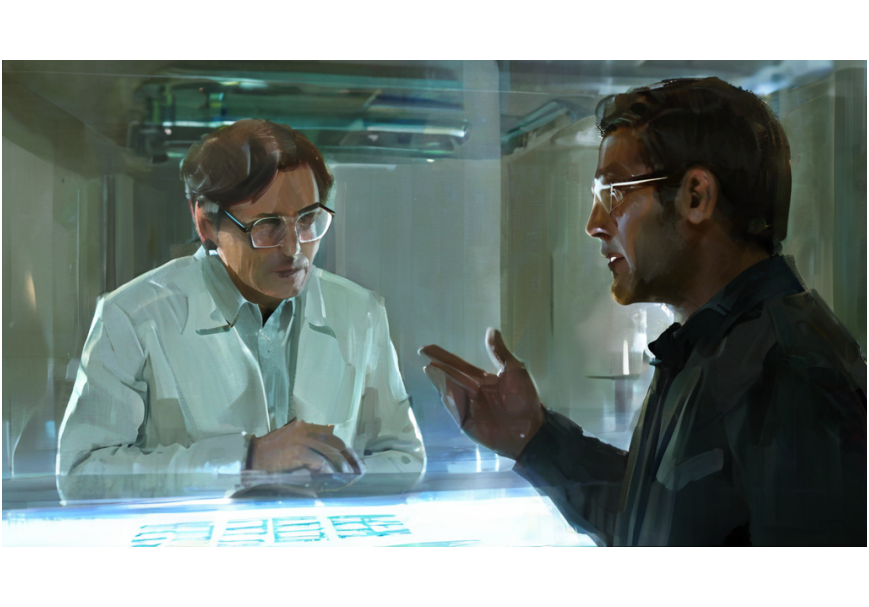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9

❖

동녘이 다시 캡슐에 들어간 가운데, 치수와 준호가 데이터를 검색하며 동녘의 신체를 검사하고 있었다.



"소연의 멘탈 레이트는?"
"지금 30프로도 안 됩니다!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동녘은 조금이라도 둘을 거들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소연 씨"를 외쳤다.

"왜 자꾸 불러… 나 졸려…."

마침내 소연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다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치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본 동녘이 다시 소리쳤다.

"자면 안 돼요, 소연 씨! 조금만 참아요!"

치수가 태섭에게 다급히 질문했다.

"아직 소연 바디 위치는 파악이 안 됐어? 12시간이 다 되어 가잖아!"
"지금 아주 미약한 신호가 파악이 됐습니다만, 오차 범위 밖이에요!"
"지금 오차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바로 출동한다."
"원장님이 태웅 대장 라이딩 해서 수술을 하고 계시는데 컨트롤을 어떻게 하죠?"
"우선 내가 잡는다. 자, 출동이야."

치수가 동녘이 들어간 캡슐을 두드리며 말했다.

"너도 빨리 따라와!"
"네? 제가요?"
"몸을 찾자마자 소연에게 의식을 줘야 하는데 그럼 당연하지,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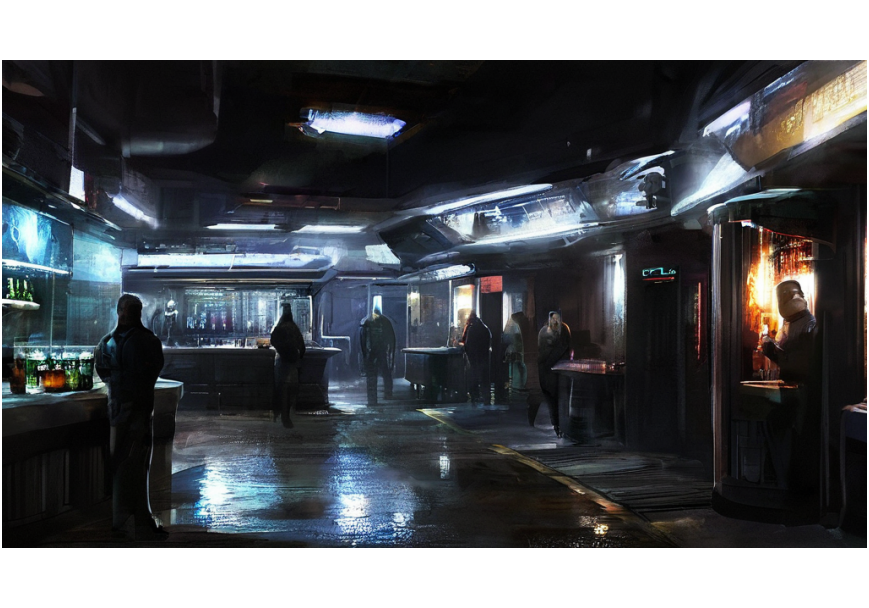
치수가 캡슐 문을 열더니 허둥대는 동녘을 끌고 나갔다.

❖

블랙마켓 사무실에 우진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아니, 사장님! 어쨌든 제 허락도 안 받고 제 유전자 그대로 클론 해주신 거 맞잖아요! 제가 몇 명이 돌아다닌다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저 이거 불법 클론으로 고발합니다?"

강 사장은 우진에게 질세라 우진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고함쳤다.



"고발? 고오발? 야, 너 우리 계약서 다시 확인시켜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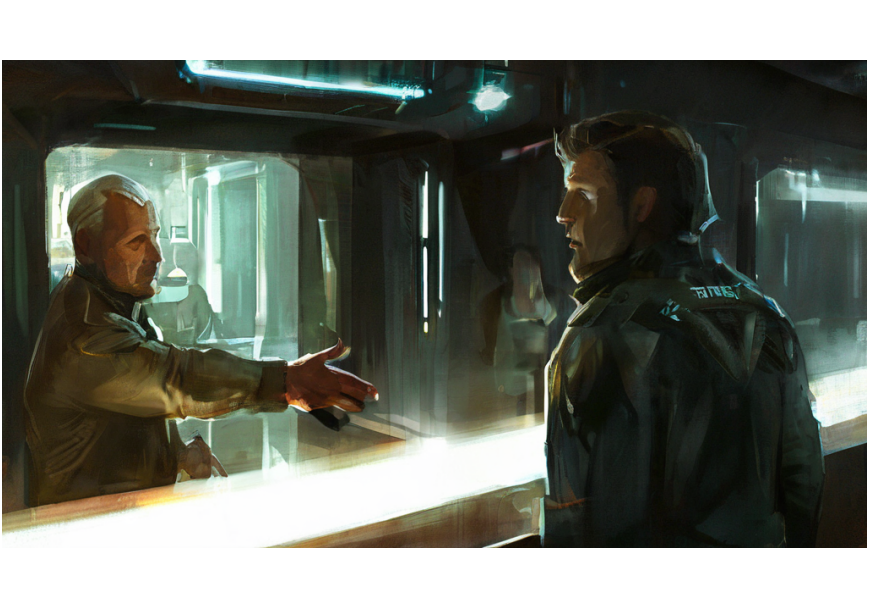
강 사장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구석에 깨알 같이 적힌 문구를 우진에게 확인시켜주며 그 내용을 크게 소리치듯 읽었다.

"을! 박우진은 유무형상의 신체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며, 이에 따른 소울라이딩 및 클론에 동의한다. 이거 봐, 네 저작권은 이미 우리 거야!"
"아니, 제가 애초에 클론이 아닌데 저작권이 무슨 소리에요? 그건 클론 만들 때나 적용되겠죠!"
"뭐가 어쨌든 사인은 된 거 맞잖아!"

강 사장이 우진의 서명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난 몰라요, 어차피 이거 불법 영업이니까 내가 무조건 고발할 거예요!"

고압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강 사장이 찌푸렸던 표정을 풀고 화해를 제안하는 제스처로 말했다.



"우진아, 우리 에이스! 우리 이러지 말자. 함께 돈 많이 벌었잖아? 네가 원하면 정산 비율 더 높여줄게. 지금 3:7인데 4:6 어때?"

우진이 망설이다 대답했다.

"모든 우진 클론에게 나오는 수익의 6:4로 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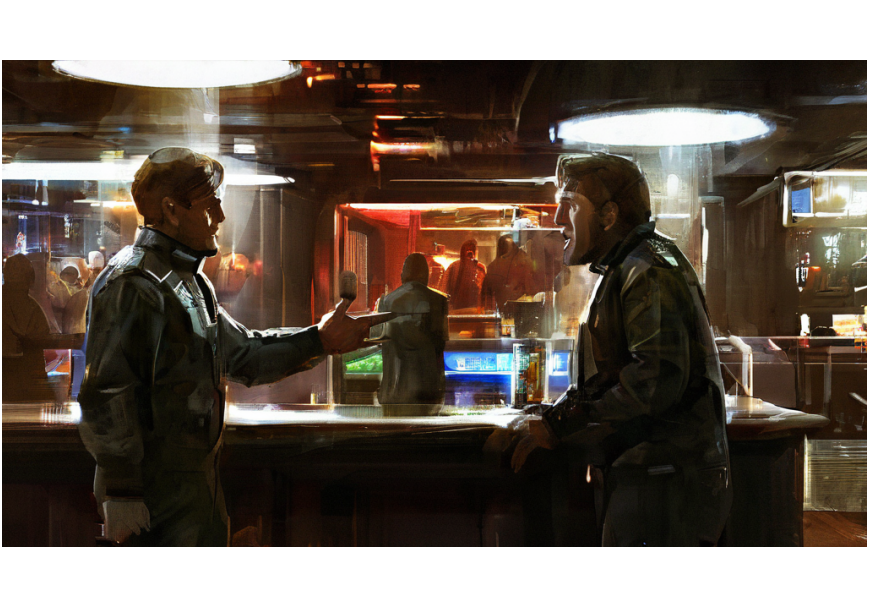
강 사장이 다시 버럭했다.

"이런 날강도 새끼!"

그러거나 말거나 우진의 태도는 차가웠다.

"아니면 바로 고발 들어갈 수도 있구요."
"그럼 좋아. 차라리 비즈니스로 가자. 아예 너를 더 클론 많이 해서 사업화를 하는 거야. 어때?"

솔깃해진 우진이 "좀 더 얘기해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차며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블랙마켓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깜짝 놀란 강 사장이 문을 차고 들어온 치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중사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 더미가 더 들어오는 날이었던가요?"
"강 사장님. 혹시 저희에게 받는 합법적인 더미 외에 더 유통하는 거 있으시죠?"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어디까지나 오리엔티스의 협력사로서 오리엔티스가 주시는 더미만 가지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동녘이 치수 앞에 나서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 사장님, 불법으로 거래 많이 하세요. 네모인지 뭔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클론 공장도 돌려요!"

동녘을 보고 놀란 강 사장이 한 발 물러나며 말했다.

"아니, 너는… 어쩌다가 여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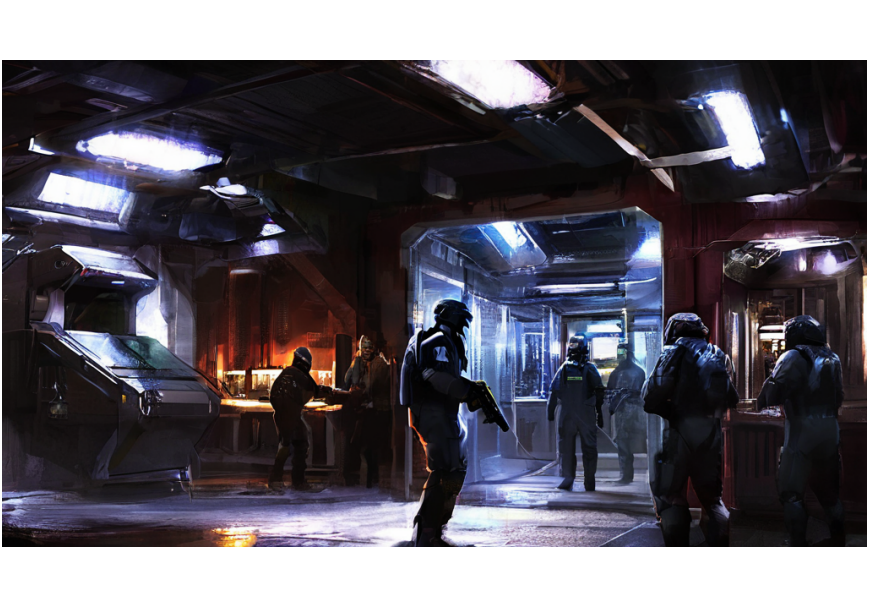
한편 탐지기를 들고 신호를 조사하던 태섭이 벽면에서 신호가 잡히자 대원들에게 소리쳤다.

"이 안쪽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그 벽에서?"

의아해하는 치수를 뒤로 하고 동녘이 강 사장의 책상으로 다가가 책상 밑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태섭이 서있는 벽면이 큰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이 풍경을 보며 당황한 강 사장이 떨리는 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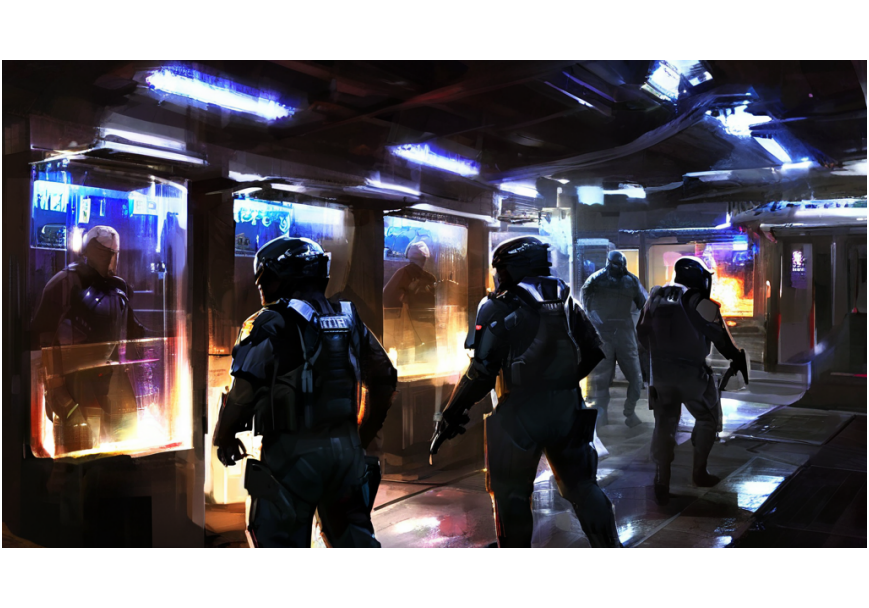
"중사님,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는 그냥 단지… 더미 모음실이구요."
"일단 이 분도 체포해!"

대원들이 강 사장을 체포하는 동안 치수와 나머지 대원들은 벽면 안쪽의 실험실로 진입했다.



❖

실험실 안에는 동녘이 지난 번에 보았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의 캡슐들이 끝없이 놓여 있었다. 생각 외로 큰 규모에 대원들이 넋을 놓고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태섭이 탐지기의 신호를 따라 여기저기를 조사했다. 이미 대량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우진의 클론들 너머로, 소연이 든 캡슐이 보였다.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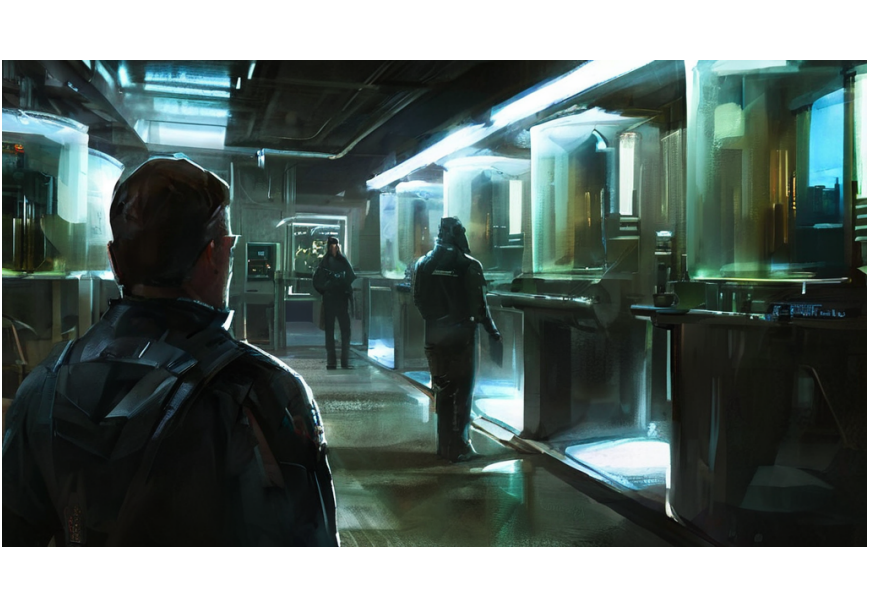
태섭의 외침에 치수와 동녘이 태섭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어?" 태섭이 의아한 목소리를 냈다. 치수와 동녘이 그 의아한 목소리의 이유를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연의 몸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에 달했던 것이다.

"일단 소연 본체가 맞는지 테스트를 해줘."

태섭과 준호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대원들에게 잡혀 온 강 사장을 보며 치수가 물었다.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샀어요?"
"이게 어제 갑자기 들어온 건데요… 자기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헐값에 놓고 갔는데…."
"그게 누구야? 어디? 당신, 네모하고 거래하는 거야?"
"아뇨! 네모는 전혀 누군지 모르구요, 그냥 일반적인 인상착의였습니다요!"
"일반적인? CCTV 있어?"
"저희가 손님들 초상권 때문에 CCTV는 두지 않아요. 근데 중사님! 막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울라이딩 해서 왔으면 그게 그 사람인지, 아니면 네모가 그런건지.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말문이 막힌 치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가 태섭과 준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찾았어?"
"이게 미묘하게 DNA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오차율이 5프로 이내이긴 한데, 원래 소연 몸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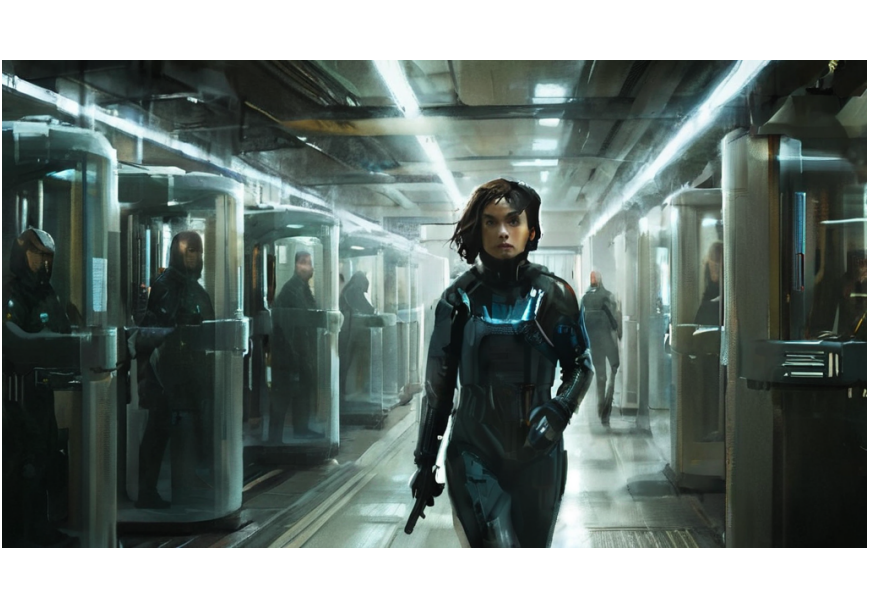
준호에 이어 태섭이 말했다.

"이쪽도 마찬가집니다. 의식율이 제로 상태도 아니에요. 완벽한 더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완벽한 더미가 아니면? 살아있다는 거야?"

마침 그 순간, 태섭의 탐지기에서 신호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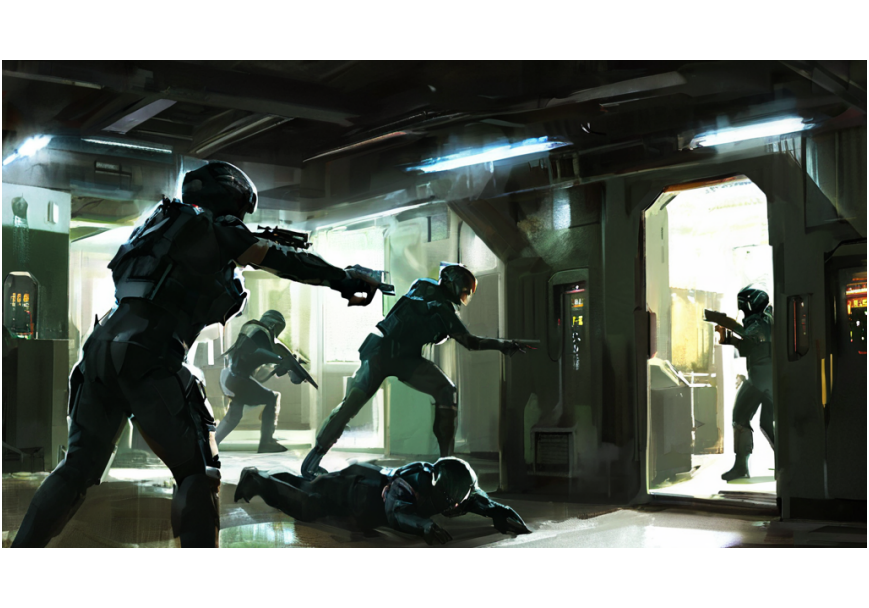
"어? 신호가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소연 몸이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치수가 고개를 돌리자,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윤곽이 보였다. 마침내 드러난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소연이었다. 비록 중무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뒷목에 소형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누군가 라이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너… 누구야?"

치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연이 말 없이 손짓했다. 그것이 누군가를 지휘하는 동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캡슐이 깨지며 수십 명의 소연들이 뛰쳐나와 오리엔티스 대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녘! 너는 얼른 저 메인 소연의 몸을 제압하고 소연의 의식을 옮겨야 해!"
"알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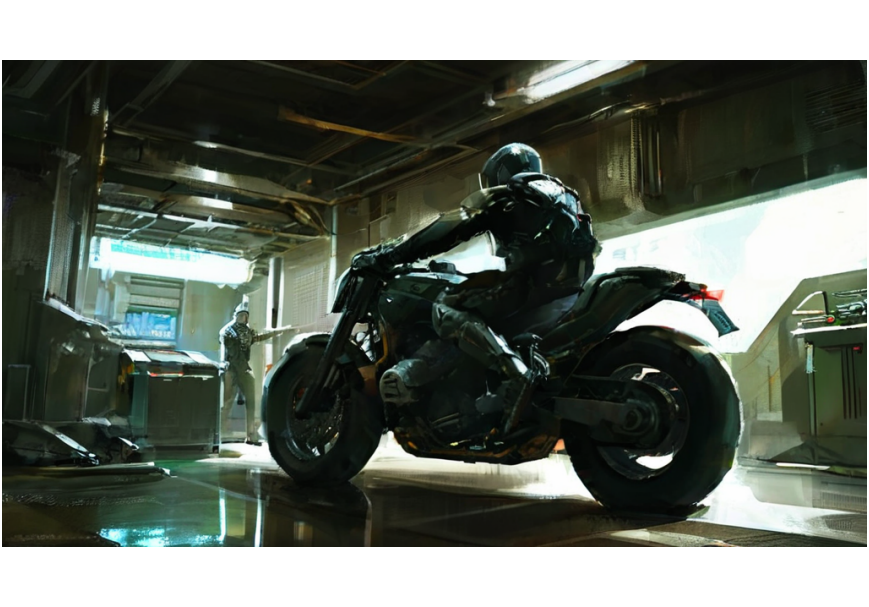
육탄전이 시작됐다. 소연 부대의 전투력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빗나간 공격과 대원들의 몸싸움에 실험실 캡슐들은 성한 데 없이 깨져 나갔다. 캡슐 안에 들어있던 더미들은 깨진 캡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의식이 발생하기라도 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실험실 밖으로 하나 둘 씩 빠져나갔다.

정예 부대원이자 베테랑인 치수와 태섭, 준호가 최선을 다해서 소연 군단을 상대했음에도, 소연 군단의 화력은 너무나도 막강했다. 아무래도 소연 군단은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듯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인간을 초월해 있었다.

"이럴 때 태웅이가 있어야 하는데."

한편,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 없는 동녘은 소연 군단을 아등바등 상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소연의 움직임 속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빈틈을 향해 강하게 주먹 한 방을 날리려는데, 소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동녘이 주춤하는 동안 소연은 빈틈을 보완하고 동녘을 향해 위협적인 공격을 날렸다. 동녘은 일단 방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때 벽의 한 쪽이 부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갑차 같은 바이크가 실험실로 난입했다.

"늦어서 미안."

Continued to ep.10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